

상을 주어도 힘쓰지 않고, 벌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즉, 상과 벌과 칭찬과 비방의 네 가지를 다 해도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신하는 제거해야 한다.

제나라 경공이 진나라에 가서 평공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사광도 한 자리에 있었다. 경공이 정치에 관해서 사광에게 물었다. “태사는 어떤 일을 나에게 말할 수 있겠소.” 사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주연이 무르익을 무렵, 경공은 물러가려고 하다가 또 정치에 관해서 사광에게 물었다. “태사는 어떤 말을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오.” 사광이 말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경공이 물러나와 숙소로 돌아가려 하는데 사광이 배웅을 나왔으므로 또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사광이 대답했다. “군주께서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경공은 숙소로 돌아와 사광의 말을 생각하고 술이 깨기도 전에 그가 한 말의 뜻을 알아차렸다. 생각건대, 공자 미와 공자 하 이 두 사람은 경공의 아우들이었지만, 제나라 민심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집안은 부유하며,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경공과 비슷했다. 경공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내 지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사광은 나에게 두 아우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한 것이다.” 경공은 귀국하자 곡식 창고를 열어 많은 빈민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창고에 들어 있는 재물을 고아나 과부에게 나누어주어 재물이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궁중의 여인들 중에서 경공을 모시지 않는 자는 해방시켜 시집을 보내고, 70이 된 노인에게는 쌀을 주는 등, 은혜를 베풀어 두 아우에게 지지 않고 민심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3년이 경과하자, 두 아우는 제나라에서 나와 공자 하는 초나라로, 공자 미는 지나나라로 갔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2] -

제나라 경공은 안자와 소혜에서 유람하면서 백침이라는 정자에 올라 자기 나라를 둘러보았다. “전망이 무척 좋구나. 광대한 강물이며, 높이 솟은 산이며, 후세에 이 토지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 안자가 말했다. “그것은 전성씨일 것입니다.” 경공이 말했다. “내가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성씨가 손에 넣게 된다니 무슨 뜻인가.” 안자가 대답했다. “전성씨는 제나라의 민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대할 경우에는 작록을 청원하여 이를 대신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되의 분량을 넘치게 주고, 받아들이는 때는 되의 부족하게 받아들이며, 또 소를 잡아도 자기는 불과 한 근을 가지고,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의복도 자신의 것으로는 1년에 불과 36척만을 떼어 놓고 그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내다 파는 재물의 값도 산에서 사들이는 값보다 비싸지 않으며, 생선, 소금, 자라, 조개의 가격도 해변에서 사는 값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군주께서는 무거운 세금을 과하고 계신데 전성씨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길가에 죽어가는 백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손을 잡고 전성씨에게 달려가 목숨을 건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아, 차조나 따자. 전성자에게로 갈거나」 시에는 「그대에게 덕은 없지만 함께 노래하며 춤춥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전성씨의 하찮은 덕이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고마워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백성은 모두가 전성씨에게 마음이 끌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제나라는 전성씨가 다스리게 되리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경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슬픈 일이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성씨의 천하가 된다니... 그러면 그 동안이나마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안자가 대답했다. “염려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백성을 도와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현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매한 자를 멀리 하시고, 혼란을 다스리시어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전성씨와 같은 자가 열 사람이 있더라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3] -

어떤 사람이 앞에 예로 든 사광과 안자의 이야기를 놓고 말했다. 「경공은 군주로서의 권세를 누릴 줄 모르고 있는 것이며, 사광이나 안자는 해로움을 제거할 줄 모른다.」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안전한 수레에 몸을 맡기고, 여섯 필의 말이 끌게 하고, 탁월한 마부로 하여금 물게 한다면 자기 몸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질주하는 짐승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여섯 필의 말의 힘도 빌리지 않고, 훌륭한 마부도 마다하고, 땅에 뛰어내려 제 발로 짐승을 쫓고 있으니, 비록 누계처럼 빠른 자라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말과 견고한 수레만 있으면 비록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수레에 몸을 맡긴다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국가는 군주를 태우는 수레에 해당될 것이며, 권세는 군주의 말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멋대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신하를 권세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고, 군주 스스로가 은혜를 베풀며, 천하 만민을 다스리며 신하와 경쟁을 하면서까지 민심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군주가 안전한 수레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말을 버리고 땅에 뛰어내려 제 발로 짐승을 쫓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은 권세를 쓸 줄 모르는 군주인 것이며, 사광이나 안자는 해를 제거할 줄 모르는 신하라고 할 수 있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4] -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춘추를 읽어보면, 신하가 군주를 살해하고, 자식이 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수십 가지나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그렇게 된 것이다.」 간악한 모든 일은 오랜 동안 멋대로 방치하게 되면 쌓이고 쌓여 큰 사건이 되고, 마침내는 큰 세력이 되어 그 세력이 군주나 부친을 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재빨리 그 화근을 뿌리째 뽑아버린다. 전성자의 반란도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다. 조금씩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나라 군주가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안자는 군주에게 군주를 침해하는 신하를 억압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군주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간공을 화를 입은 것이다. 자하는 말했다.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는 간악한 싹이 트기 전에 재빨리 잘라버린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5] -

계손이 노나라 재상으로 있었을 때, 자로는 후의 장관으로 있었다. 노나라는 그 해 5월에 사람을 징발하여 긴 구덩이를 파게 했다. 자로는 이 공사 때에 자기 봉록의 곡식으로 음식과 술을 만들어 구덩이 파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자공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 음식을 뒤엎고, 식기를 부수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노나라 왕의 백성인 네가 무엇 때문에 생색을 내고 있는가.” 자로는 성을 발칵 내며 공자에게 달려와서 따졌다. “선생님께서서는 제가 인의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인의 밖에 없는데, 인의란 천하의 백성과 물건을 공유하며,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봉록으로 백성을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나는 너만은 깨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깨우치지 못했구나. 너는 본시 예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인부에게 음식을 준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에 의하면 천자는 천하를 사랑하고, 여러 신하는 지방을 사랑하며, 대부는 관직을 사랑하고, 선비는 집을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군주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노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그것을 군주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네가 당돌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군주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인의를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다.” 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손에게서 사람이 와서 공자를 책망했다. “내가 백성을 소집하여 공사를 시키고 있는데, 선생은 자기 제자에게 명하여 인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내 백성들을 빼앗을 작정인가.”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계손은 공자와 같은 현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노나라의 군주도 아니면서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권세를 빌어 재빨리 해악이 싹트기 전에 멈추게 했기 때문에 자로는 생색을 내지 못했고 해악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군주라면 해악을 금하는 일 따위는 쉬운 일인 것이다. 경공의 권세로 전성자의 침범을 멈추게 했더라면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등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6] -

태공망이 동쪽의 제나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제나라의 동해 가에 광율과 화사라는 형제 처사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도 않으며, 제후의 벗도 되지 않고,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 군주가 주는 명예나 녹도 없이 노동하면서 생활할 것이다.」 태공망은 수도인 영구에 도착하자 관리를 시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처형의 첫 본보기로 삼

았다. 그런데 주공단이 노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사자를 보내어 태공망에게 물었다. “그 두 사람은 현자입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에 그 현자들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공망이 대답했다. “두 형제가 내세운 주장은 「우리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도 않으며, 제후의 벗도 되지 않고,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 군주가 주는 명예나 녹도 없이 노동하면서 생활할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시다시피 천자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으니, 나도 그들을 신하로 둘 수는 없었고, 제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나도 그들과 친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경작하여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상벌로써 격려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군주에게서 명예를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들이 아무리 현자라도 나에게서는 쓸모가 없고, 군주의 녹을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내 일에 협조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지 않을 것이니 다스릴 수가 없고, 관직을 거절하였으니 충성할 기회도 없습니다. 게다가 선왕들께서 신하와 백성을 부리는 수단은 작위와 봉록이 아니면 상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것도 그들을 부리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군주가 되어야 합니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경작에도 종사하지 않고, 출세를 하거나 명예를 빛낼 수 없다고 해서야 나라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한 필을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기와 같은 천하 최상의 명마라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지 않고, 또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추지 않으며, 왼편으로 돌리려 해도 돌지 않고, 오른편으로 돌리려 해도 돌지 않는다면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리겠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기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면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 하더라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군주에게는 소용이 없고, 행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군주에게 소용이 없으면 현명한 군주는 그러한 자들을 신하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듣지 않는 기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태공망은 동방의 제나라에 부임했다. 해변에 광율이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태공망이 그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세 차례나 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 온 뜻을 말하였으나 광율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태공망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마침 그 때 주공단이 노나라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달려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인 후였다. 주공단이 말했다. “광율은 천하의 현자였는데 선생이 그를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공망이 대답했다. “광율의 사상은 천자의 신하가 될 수 없고, 제후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왔었기 때문에 그가 법을 문란케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령 이곳에 한 필의 말이 있는데 비록 그 말이 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몰아도 움직이지 않고 끌어도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몸종과 같이 무지한 자라도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7] －

여이라는 자가 위나라 사공에게 진언하자, 사공은 기뻐한 나머지 한숨을 내쉬었다. 측근이 물었다.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면서 어찌 여이를 재상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사공이 대답했다. “원래는 말인데 사슴과 같은 놈이 있으면 천금의 값이 나간다. 그런데 천금의 말은 있는데 천금의 사슴은 없는 이유는 말은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사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이는 만승 대국의 재상이 될 만한 인물로 마음은 밖으로 향해 있고 대국을 섬길 만한 의지가 있지만 그의 우리 위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상으로 발탁하지 않는 것이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 [108] －

설공이 위나라 소공의 재상으로 있을 때, 왕의 곁에서 쌍둥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양호요 하나는 반기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설공에게는 공손하지 못했다. 그래서 돌을 불려다가 윗을 놀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100금을 주어 쌍둥이 형제와 겨루게 하기도 했다. 잠시 후에 몸종이 이렇게 알려 왔다.

“장계가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설공은 화를 벌컥 내고 칼을 몸종에게 내주면서 말했다. “가서 그 놈을 죽여라.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놈이 아닌가.” 몸종이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장계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장계는 공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공의 귀에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설공은 명령을 취소하고 장계를 손님으로 후하게 대접하면서 말했다. “그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을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자를 시켜 천 섬의 쌀을 장계에게 보내주는 한편, 재물을 관리하는 자를 시켜 500금을 주어 보냈고, 수레와 말을 다루는 관리를 시켜 좋은 말과 수레 두 대를 저택까지 보내 주었으며, 다시 내시에게 명하여, 궁중의 미녀 20명을 그에게 선사했다. 이것을 보고 쌍둥이 형제는 속삭였다. “설공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 우리들도 앞으로는 설공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투어 설공을 위해 일을 했다. 설공은 다만 그의 권한에 의해서 군주의 정치술을 빌었을 뿐이었는데 쌍둥이 시종들을 자극하여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하물며 군주가 군주로서의 정치술을 행한다고 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래 새를 길들이려면 날개를 먼저 자르는 법이다. 날개를 자르면 반드시 사람을 따르게 되고, 먹이를 먹게 된다. 어찌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건대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기를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다. 군주가 주는 녹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지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군주의 녹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관직에 따르게 하면 결국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